

헤드라인의 부정확성

F · T·마르타에츠

이 글의 필자인 마르쿠에츠(F.T,Marpuez) 씨는 템플(Temple)대학의 저널리즘학과의 조교수이다. 또 이 글은 Journalism of Communication 의 1980 년 여름호(Vol.30, NO.2)에 게재된 것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도시의 네 개 일간지들에 보도된 하드 · 뉴스기사(hard news story)의 헤드라인을 내용 분석한 결과, 많은 비율의 헤드라인들이 왜곡되거나 애매모호하며, 이런 현상은 특히 지방뉴스가 두드러지게 심했다.

신문의 정확성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연구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1936 년에 찰레이(Charnley)가 뉴스기사에 언급된 사람들의 견해에 대한 정확성을 연구했다. 그는 세 개의 미네아폴리스(Minneapolis)의 일간지들로 부터 기사를 선정하고, 그 기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설문지와 반송용 봉투를 동봉해서 우송했다. 그 응답자들은 기계적이거나 인쇄상의 잘못, 기사작성자의 잘못, 그리고 의미나 암시의 오류 등에 대한 세가지 유형의 잘못을 작성하도록 요구 받았다. 591 개의 스트레이트 · 뉴스(straight news)의 거의 절반이 약간씩 부정확했다.

신문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들은 가끔 찰레이의 방법론을 사용했다. 브라운(Brown)은 오클라호마의 신문들에 관한 기사를 연구했는데 143 개의 표본기사 중에 40%가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러(Berry)는 샌프란시스코 만의 일간신문기사 중 270 개 지방기사 중에 54%가 부정확한 것을 발견, 로렌스(Lawrence)와 그레이(Grey)는 다른 캘리포니아 신문에서 82 개의 지방기사 중에 26%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많은 연구들이 비교할 만한 결과들을 도출했다.

이 연구는 역점과 방법론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찰레이그룹의 연구들과 상이하다. 본 연구의 역점은 일반적인 부정확성에 초점을 맞춘 찰레이 연구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기사의 내용과 관련된 하드·뉴스기사의 헤드라인의 정확성에 있다. 이 역점의 차이가 전반적으로 다른 방법론을 적용하도록 하게 한다.

많은 신문 독자들이 단지 신문의 헤드라인만을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날의 사건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신문 헤드라인에만 의존할 수도 있다.

신문헤드라인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아마 독자들이 각 신문을 읽는데 소요시간이 일주일당 단지 평균 34 분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강조될 것이다. 일간신문의 평균지면이 5 천부 발행의 24 면부터 25 만부 발행의 65 면까지 다양함을 고려할 때, 이 구독시간은 대단히 짧다. 나아가서, 24 면짜리 신문과 65 면짜리 신문은 각각 평균 80 개와 210 개의 뉴스와 편집기사를 싣고 있다. 이 주어진 읽을 거리의 양과 단지 34 분이란

구독시간을 볼 때, 많은 독자들은 많은 뉴스 기사를 헤드라인 이상 읽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뉴스 사건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나 의견은 이러한 헤드라인의 정확성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헤드라인이 여론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탄넨바움(Tannenbaum)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그는 가상의 재판 기사에 대한 여러 가지 헤드라인을 작성했는데, 통계학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고가 유죄나 무죄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유죄의 경향이 강한 헤드라인에 노출되었느냐 무죄의 경향이 강한 헤드라인에 노출되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올포트(AllPort)와 레프킨(Lepkin)에 의한 전시연구는 비관적인 헤드라인들(예, 헤드라인에 연합군이 어떤 전장을 실물 당했다고 발표하는 것)이 국민들을 전쟁 노력에 헌신하도록 하고, 한편 낙관적인 헤드라인들은 그 반대의 노력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28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에미그(Emig)는 375 명중에 51%가 그들의 의견을 그날의 뉴스 헤드라인에 의존한다는 데 동의했다.

본 연구는 필라델피아 시의 네 개 일간지들에 대한 헤드라인의 정확성을 다루었다. 이들 일간지들과 발행부수는 필라델피아 · 부리틴(516,000 부) , 필라델피아 · 인콰이어(419,000 부) 그리고 필라델피아 저널(81,700 부)이다. 인콰이어 지와 저널 지는 조간이고, 데일리 · 뉴스 지는 석간이다. 부리틴 지는 조간판을 발행해서 전체 발행부수를 증대시키고 있는 석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석간 판만을 분석했다.

1978 년 5 월 5 일부터 7 월 31 일까지의 네 개 일간지들의 44 개 표본지에 보도된 총 292 개의 하드·뉴스 기사들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116 개 (39.8%)의 하드기사가 인콰이어 지에서, 89 개(30.5%)의 기사가 부리틴 지에서, 62 개(21.1%) 의 기사가 데일리 · 뉴스 지로 부터, 25 개(8.6%)의 기사가 저널지로부터 추출되었다. 하드 기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었다. 즉 그것들은 기업과 경제, 교육, 국제관계, 정부와 정책, 건강과 과학, 외국문제, 법과 법 시행, 군사, 공익사업, 인종관계 그리고 종교이다. 소프트기사 또는 흥미거리의 기사들은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헤드라인의 정확성에 대한 시험은 헤드라인의 의미가 뉴스기사의 내용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헤드라인의 정착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헤드라인과 뉴스기사의 내용 두 가지가 밀접하게 분석되었다. 정확성은 헤드라인과 특정한 뉴스기사 사이의 의미가 일치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헤드라인이 정착한다고 특정 지어지는 것은, 그 헤드라인이 말하고, 약속하고, 또는 발표하는 의미가 그 뉴스기사의 내용에서 묘사되고, 이야기되고, 설명되는 의미와 일치해야 한다. 만약 기계적 잘못, 문법적 잘못, 인쇄상의 잘못이 뉴스기사내용의 의미와 관련해서 헤드라인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본 분석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네 개 일간지의 표본에 대한 예비분석에서 헤드라인의 특성이 세가지 유형으로 판명되었고 헤드라인을 분류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것들은 정확한(accurate), 왜곡된 (misleading), 모호한(ambiguous) 헤드라인들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확한 헤드라인은 뉴스기사의 내용의 의미와 일치하는 표제이다. 이러한 헤드라인의 예는 6 월 9 일자 인콰이어 지에 보도된 『카터가 쇠고기의 수입량을 증대 시키다』이다. 그 뉴스기사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카터 대통령이 금년에 더 많은 외국쇠고기의 수입을 허락했다고 발표했다. 쇠고기 공급증대에 대한 카터 대통령의 목적은 미국의 목축업자들이 타격을 받지 않는 동시에 가공쇠고기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었다.」

이 뉴스기사의 헤드라인과 내용의 의미가 일치하는 것으로 고찰되었기 때문에, 그 헤드라인은 정확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한편 왜곡된 헤드라인은 기사의 내용의 의미와 다른 의미를 지닌 헤드라인이다. 그 예는 7월 31일자 인콰이어 지의 『군비를 축소한 국가가 미국무기를 구매할 것이다. 이 헤드라인이 왜곡된 것은 지금까지 군비를 축소한 국가가 처음으로 미국무기를 구매하는 인상을 준 사실이다. 어쨌든 그 기사가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이 수년동안 미국무기의 구매국인 일본에 대해 단순히 무기판매를 증대 시킨 것이었다.

모호한 헤드라인은 기사내용의 의미와 관련해서 불명확하거나 혼돈을 주는 의미를 지닌 헤드라인이다. 이 예는 7월 31일자 저널 지의 『게릴라근거지 공격』이다. 이 헤드라인을 읽는 독자들은 누가 또는 무엇이 근거지를 공격했고 게릴라들은 누구이며 또는 어디에 위치한 근거지인지 모른다.

헤드라인은 좀더 구체적으로 지방(local), 전국(national), 국제(international) 뉴스기사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지방 기사들은 필라델피아 지역의 독자들에게 관련되고 흥미 있는 기사들로 정의되었다. 전국기사는 발생한 장소가 고려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뉴스 사건에 속하는 것이었다. 외국란에 게재된 기사들은 국제적 유형에 분류되었다. 헤드라인의 정확성에 대한 마지막 분류는 예를 들어 기업과 경제, 교육, 국제관계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에 적용시켰다.

분석(coding)과정에서 최대한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료는 언어학 교수, 커뮤니케이션에 권위 있는 학생 그리고 필자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자(coder)들 각자는 자세한 지시 사항들과 예들이 제시된 코딩절차에 관한 부분을 사용했다. 계산상의 신뢰도를 위해서 스피겔만(Spiegelman) 등의 방법을 사용했고, 분석자들 간의 신뢰도는 .68 이다.

각 신문으로부터 추출된 헤드라인의 수와 관련해서 볼 때 타브로이드 판의 일간지들이 표준 판의 일간지들 보다 왜곡된 그리고 모호한 헤드라인들의 퍼센테이지가 높았다.

표 1은 292개의 기사들의 헤드라인이 얼마나 정확하고 왜곡되고 모호한 가를 보여주고 있다. 헤드라인의 25%(N=74)가 왜곡되거나 모호하고, 75%(N=218)가 정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네 개의 모든 일간지들의 헤드라인에 의해 전달된 의미가 이들 헤드라인이 사용된 기사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일간지들을 개별적으로 보면, 인콰이어 지와 부리틴 지는 헤드라인의 취급형태 비슷했다.

표 1 : 네 개 도시 일간지들에 대한 헤드라인특성의 비교

신 문	헤드라인특성의 유형					
	정 N	확 %	왜 N	곡 %	모 N	호 %
인콰이어 紙(N=116)	92	79.0	15	13.0	9	8.0
부리틴 紙(N=89)	68	76.5	12	13.5	9	10.0
데일리·뉴스 紙(N=62)	42	67.7	12	19.3	8	13.0
저널 紙(N=25)	16	64.0	3	12.0	6	24.0

인콰이어 지의 116 개 헤드라인들 중의 24 개-다섯 개 중의 한 개-가 왜곡되거나 모호했다. 그리고 부리틴 지의 89 개의 헤드라인들 중의 21 개-4 개중의 1 개-가 왜곡되거나 모호한 유형에 속했다.

왜곡되고 모호한 헤드라인들의 비율은 역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는 데일리·뉴스 지와 저널 지에서 높았다. 데일리·뉴스 지의 62 개 헤드라인들 중에서 20 개-3 개 중의 1 개-가 왜곡되거나 모호했다. 저널 지는 25 개 중의 9 개 즉 3 개중의 한 개가 왜곡되거나 모호했다. 이 두 일간지들에서 부정확한 헤드라인들의 높은 비율은 그것들이 타브로이드판이고 또 뉴스사건의 센세이셔널한 측면에서 더 초점을 맞출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지방뉴스 기사들은 전국적이거나 국제적인 뉴스 기사들 보다 더 왜곡되거나 모호한 헤드라인들을 사용했다.

표 2 는 지방적, 전국적 그리고 국제적 기사들의 헤드라인에 관한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그룹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인 58 개의 지방기사헤드라인들이 26.7%의 가장 큰 비율로 왜곡되거나 모호했다. 그 다음으로 큰 비율(25%)은 전국 기사들이고, 국제 기사들은 24.4%였다. 아마 지방 기사들의 「가정접근성향」(closeness to home)이 필라델피아 일간지들로 하여금 그들의 헤드라인을 극화 시키도록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 광범위하고 비교적 친숙하지 못한 국제 기사들은 좀더 객관적 취급을 유도했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신문사들이 국제 기사에 관한 한 통신보도의 내용에 가깝게 헤드라인을 뽑았을 것이다.

표 3 은 정확, 왜곡 또는 모호한 뉴스기사의 특수한 유형의 헤드라인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표는 지방뉴스와 전국뉴스를 모두 묶었고, 그리고 국제뉴스는 기사들이 발생하거나 시발된 세계의 각 지역에 근거해서 국제 기사들을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모든 기사들 중에 약 70%가 기업과 경제, 정부와 정책, 국제관계, 유럽, 법과 법 시행 그리고 중동에 관한 것들이었다. 모든 기사유목들의 퍼센테이지가 왜곡되고 모호한 헤드라인들의 퍼센테이지들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그 결과는 $r=.702(p<.01)$ 이었다. 그것은 각 기사유목에 있는 왜곡되고 모호한 수가 근본적으로 그 특수한 유목에 있는 기사 수들과 함수관계에 있음을 암시한다. 바꾸어 말하면, 제목의 기사들이 많을 수록 왜곡되거나 모호한 표제들이 발생할 우연성이 높다.

국제 기사들 가운데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중동에 속하는 것들은 유럽, 아시아 그리고 북아메리카(캐나다)에 속하는 것들 보다 왜곡되고 모호한 헤드라인들의

비율이 높다. 이것은 로데시아와 자이레, 파나마 문제 그리고 아랍과 이스라엘 분쟁이 이들 세 개 지역에 관한 기사들에서 헤드라인과 내용상의 많은 불일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 조사 결과들은 다른 도시의 도시 신문들에게 일반화 시킬 수 없고, 이것들은 다른 도시에 있는 다른 신문들이 실제로 헤드라인에 있어서 유사한 문제점등을 안고 있다는 것을 추측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그리고 뉴욕 · 타임즈, 크리스찬 · 사이언스 · 모니터 그리고 워싱턴 · 포스트같은 전국적 규모로 간주되는 신문과 다른 여론의 심장부에 있는 도시 신문들에 대한 헤드라인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헤드라인과 내용의 불균형 그리고 헤드라인의 함축에 관한 연구가 독자의 이해를 돕는데 밝은 빛을 던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 : 지방, 전국, 국제 뉴스 기사들에 대한 헤드라인 특성의 비교

뉴스기사의 유형	헤드라인특성의 유형					
	정 N	확 %	왜 N	곡 %	모 N	호 %
지방 (N=58)	42	72.4	8	13.8	8	13.8
전국 (N=148)	111	75.0	23	15.5	14	9.5
국제 (N=86)	63	75.6	11	12.8	10	11.6

표 3 : 뉴스기사 유목에 의한 헤드라인 특성의 비교

뉴스기사의 類目	헤드라인특성의 유형					
	정 N	확 %	왜 N	곡 %	모 N	호 %
기업과 경제 (N=48)	39	81.3	5	10.4	4	8.3
정부와 정책 (N=41)	31	75.6	7	17.1	3	7.3
국제관계 (N=34)	23	67.6	6	17.6	5	14.7
유럽 (N=33)	27	81.8	3	9.1	3	9.1
법과 법 시행 (N=29)	25	86.2	2	6.9	2	6.9
중동 (N=23)	17	74.0	3	13.0	3	13.0
인종관계 (N=19)	9	47.4	6	31.6	4	21.0
건강과 과학 (N=17)	13	76.5	3	17.6	1	5.9
아프리카 (N=14)	9	64.3	3	21.4	2	14.3
아시아 (N=8)	6	75.0	1	12.5	1	12.5
라틴 아메리카 (N=7)	5	71.4	1	14.3	1	14.3
북 아메리카 (N=1)	1	100.0	0	0	0	0
기타 (N=18)	13	72.2	2	11.1	3	16.7
계 (N=292)	218		42		32	